

# 살아있는 아버지,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야만 했다

##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기념 공연 '더 파더' 리뷰

### 플로리앙 켈레르 희곡 '아버지' 원작... 앙드레 역에 오성완 출연

유령을 마주하는 공포와는 결 자체가 다르다. 존재를 뒤흔드는 '망각' 앞에서 인간은 실존적 공포에 휩싸인다.

작중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노인 앙드레는 혼란스러울 때마다 "지금 몇 시냐"고 묻는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최악의 순간조차 그는 고작 시계를 볼 뿐이다. 마치 한 사람이 내지르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린다.

아마도 기억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 때문인 것 같다. 앙드레의 편집증적 '시계 보기'는 영화 인셉션에서 현실구분기 모호해질 때 돌리던 팽이 토렘처럼, 망각에 굴복되지 않으려는 최후의 결기로 읽혔다.

지난 23일 저녁 씨어터연바람에서 펼쳐진 '더 파더'는 망각하는 자와 주변인들의 고통을 그려낸 치밀한 심리극이었다. 종래의 극이 대부분 일정한 시간을 따라 전개되거나 역순행, 액자식, 이중역자 구성 등을 차용하던 구조였던 데 반해, 작품은 기억의 편린들을 교묘하게 뒤로 편지했다.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기념작으로 이 작품을 상연한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듯 하다. 흥미와 가십에 기대 상업적 성공만을 쫓기보다, 다소 난해하더라도 예술성을 지향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했다'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

택을 두고 전위극의 첨병 등의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기는 다소 애매해보였다. 그럼에도 예술공연 위주의 상연은 지역극단으로서 '이람' (30년)이라는 결실을 맺은 추동력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게 다가왔다.

연극은 플로리앙 켈레르의 희곡 '아버지'를 극화한 것으로 2021년 영화 '더 파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앙드레 역에 푸른연극마을의 터줏대감 오성완이 출연했으며 안느 역은 이당금이 맡았다. 또 김영균은 사위 피에르, 김현경은 간병인 로라 역을 연기했다. 피에르와 로라가 가진 악인의 페르소나인 '한 남자' (김도현), '한 여자' (오세희)도 이목을 끄는 배역이다.

간병인 로라와 앙드레가 다투는 장면은 치매 가정의 안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었다. 앙드레와 안느가 방백·독백으로 내면심리를 묘사하자 환자의 머릿속을 무대에 옮겨놓은 듯 했다. 실제로 관객 중 다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성했다는 후문, 치매환자 가정을 미화하지 않고 극예술로 그려 비극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암전이 될 때마다 가구들의 위치는 계속 변한다. 서랍과 가구는 물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패널마저 관객들에게조차 예고 없이 위치를 옮겨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모든 사건은 세트 변화 없이

노인의 아파트 안에서만 펼쳐짐에도 드라마는 역동적이다.

최소한의 무대만 갖춰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부각하려 했다는 점에서 모리스 메테르링크 작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1892)나 폴 끌로델의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 (1921) 등 상징주의 고전도 연상해 볼 수 있었다.

작중 앙드레의 목소리는 몽롱속 중얼거림, 또는 약한이 제 마음대로 쏘아붙이는 아우성처럼 객석에 울려 퍼진다. 온전한 기억을 잃어가는 자와 주변인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축제는 기대할 수 없었다. 앙드레의 입장에서 프랑스, 런던 이주와 요양 병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자신을 속이려는 불한당들의 작당 모의로 들렸다.

결국 모든 극중 상황은 미궁을 남기고, 관객이 가늠할 수 있는 선에서 실마리를 제공한 채 마무리된다.

공연장을 나오면서 기억과 존재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공자의 제자 안회는 자신마저 망각하는 '좌망(坐忘)'의 경지를 실패해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 인간이 때로 건너야만 하는 '레테의 강'이 오히려 인간에게 망각의 기쁨이 될 수도 있었다. '더 파더'의 후속작이 만들어진다면 앙드레의 절망 너머에 있는 망각의 의미를 좀 더 사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다.

공연은 2월 3일까지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린다.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4시 30분. (월요일 휴무)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안느가 망각의 공포 속에서 절망하는 앙드레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씨어터연바람 제공>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날아오르다 II'

## 김진희 개인전

### 1월31일부터 서울 인사아트 센터

성실한 작품활동 그리고 축적의 힘.

김진희 화가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작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출근해 일정한 시간 창작에 몰두한다. 누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창작이 걸맞지 아닌 더욱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이 아닌 엄정하면서도 외로운 고투의 과정임을 작가는 잘 알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에서 '창작이 자신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라는 사실로 다가왔다. 그는 사유는 예술적으로 하면서 작업은 숙련된 기술자처럼 반복하는 예술가였다. 앞뒤를 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지점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다.

김 작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날아오르다 II'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인사아트 센터.

이번 전시는 100호 위주의 작품 등 모두 36점을 선보인다. 물론 300호 2점을 비롯해 200호 1점, 몇 개의 소품들도 만날 수 있다.

주제는 익히 알려진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차용했다. 주인공이 자신을 슬막하게 하는 공간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꿈꾸는데, 김 작가 역시 자신만의 창작의 자유와 세계를 갈구한다. 전시의 부제 '날아오르다'는 상상력의 확장과 자유의 의지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

김 작가는 "짧은 날 읽었던 작품이 나중에 나이 들어 새롭게 해석될 때가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그런 소설"이라며 "인생은 진중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날아오르다'

게 살되 삶을 즐겨야 한다'는 내용이 제가 추구하는 창작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모시에 오일을 매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동양적인 모시와 서구적인 오일이 만나서 발현하는 재료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인데 하나같이 한국적이다. 여백과 음양론, 여성성은 작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집약하는 키워드들이다.

그렇다고 그는 '여성'이라는 한쪽의 성에 갇혀 있지는 않다. '남성과 여성의 합일, 공존과 연대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말에서 작품의 변곡점 등을 가

늠해볼 수 있다.

이종대 평론가는 "작가가 지향하는 자유는 순수하고 완벽한 허구적 환상과는 다르다"며 "작가는 지난한 현실을 인정하되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욕망과 욕구를 화면에 담아 이런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김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원 박사를 마쳤으며 예원예술대 교수를 역임했다. 트리베니 국제미술전시를 비롯해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노동취약·초고령사회...사회문제 담은 영화들

## '두 세계 사이에서' '플랜75' 광주극장 개봉

노동 취약계층 문제, 초고령사회에 연관된 다양한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 영화들이 광주극장에서 연이어 개봉해 이목을 끈다.

먼저 엠마누엘 카레르 작 '두 세계 사이에서'는 2월 3일부터 볼 수 있다. '펜 대신 빗자루를 들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영화는, 저명한 작가 '마리안'이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로 이주하면서 신분을 숨긴 채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린 르포르타주 형식이다.

노동자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원고에 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가는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제63회 칸 영화제 우수주연상 등을 수상한 줄리엣 비노쉬를 비롯해 헬렌 랑베르, 레아 카르네 등이 출연한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맞물린 미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작품도 스크린에 오른다. 2월 7일부터 볼 수 있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75'이 그것. 정년층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에서 75세 이상 국민들의 죽음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PLAN75'를 발표하며 펼쳐지는 가상의 상황을 그렸다.

명예퇴직 후 플랜75를 신청하지 고민하는 78세 여성 미치, 플랜75 담당 시청 직원 히로무를 비롯해 콜센터 직원 요코, 유품 처리사 마리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바이쇼치에코, 이소무라 하야토, 카와이 유미, 스테파니 아리안 등 출연.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우리가 마주하거나



'두 세계 사이에서'



'플랜75'

앞으로 맞이할지도 모르는 디스토피아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담은 영화 두 편을 선보인다"며 "비극적 사회의 단면을 투시하고 이를 영화화한 작품들은, 부정적 미래를 대비하거나 사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거대한 뿌리' 출연 객원배우 공개 모집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4월 25-27일(총 4회)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이는 제22회 정기공연 '거대한 뿌리'에 출연할 객원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2월 14일까지 이메일 접수.

작품은 4·19혁명, 3·15 부정선거 등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경험한 김수영 시인의 삶과 시를 극화할 예정이다.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을, 한국사의 아픔이 현대사회 단단한 뿌리가 됐다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공연은 '경숙이, 경숙아버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연출한 박근형과 극단 파수꾼 이은준 대표가 연출을 맡는다.

오디션은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연기, 자유연기, 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즉흥 대사가 주어질 수 있다. (개인 음악은 USB에 준비 필수)

김수영, 박인환, 나애심 등을 맡을 배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 남자 10명, 여자 3명을 선발한



'거대한 뿌리'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역을 제외한 모든 배우는 1인 다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배역에 따라 삭발, 혹은 염색 등 두발이 변경될 수 있다)

광주시립극단 홍보담당자 노여진은 "이번 작품은 4·19혁명 등 현대사의 질곡을 경험했던 인물들을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연기를 비롯해 노래 등에 능통한 연기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

# '2024 신춘문에 당선시집' 나와

## 광주일보 당선작 엄지인 시인 '파랑'도 수록

2024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인 엄지인 시인의 '파랑'을 비롯해 당선작을 수록한 시집이 출간됐다.

문학마을에서 펴낸 '2024신춘문예 당선시집'에는 모두 13명의 시와 시조 당선 작품이 실렸다.

문학마을 기획위원들은 "들이켜보면 어느 시대나 문학은 위기이거나 위기이기를 자처해 왔다. 위기를 자처하는 쪽은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 사양되는 쪽에 비하면 형편이 낫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든 문학이 고단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 이름 앞에 '시인'이라는 그 특별한 직함을 달게 된 2024신춘

문에 시·시조 당선자들에게 '시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외에도 경향신문 맹재범의 '여기 있다', 동아일보 한백양의 '원편', 매일신문 강지수의 '시운전' 등을 만날 수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엄지인 시인은 "무정형의 시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시는 슬라임 같이 모양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로 흘러내리고 추슬러도 빠져나갑니다. 손가락에 걸리는 빛을 들고 시라고 우긴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물렁하지 않은지 늘 묻고 의심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엄지인 시인

그의 시에 대해 손택수 시인은 심사평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활발하게 가로지르며 기후변화시대의 명상을 '손톱 칼로조심히 군살을 깎는' 감각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미더웠다"며 "동경한 작품들이 여일한 수준 또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